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리스도

이사야 29:18-24, 마가복음 7:31-37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49주년을 맞게 된다. 다음 달 셋째 주일이 그 날이다. 그러는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혁총회 제 101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고 대표적인 사명을 주시고, 한국과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 믿는다. 우리의 헌신은 그냥 헌신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응답도 단순한 응답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서, 주님이 주신 절대 사명을 감당하고, 절대 목표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야 하겠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부터 살리는 존재로 지으셨다. 창세기 1:27-28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살리고 다스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생명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 문제의 배경에는 죽이는 것과 속이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마귀 사탄의 존재가 있다. 요한복음 10:10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존재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버린 세상이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세상을 살려내는,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죽이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복음은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요한복음 6:39에,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우리도 이 복음을 붙잡고 나가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을 것을 믿는다. 망해 가는 가정, 가문, 우리 사회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가는 곳이 좋게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떠난 이들의 현장은 분명하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원수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거기 가서,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 때문에 직장이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가 닫히고 혀가 굳어져 있는 불쌍한 사람이 나온다.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다.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굳어진 혀를 풀어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닫히고 묶이고 죽어 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고 풀어주고 살려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할 때, 새로운 깨달음과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한다.

1. 닫혀 있고 묶여 있는 현장의 상태

(1) 첫 번째는 현장의 상태다. 지금 현장은 막혀 있다. 무엇인가 묶여 있다. 지금 불신자 현장, 이 세상은, 당연하겠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부터 더럽혀진 타락의 상태 속에 있다. 마가복음 7:21부터 보면, 주님은 이 세상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계신다. 사도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규탄했다. 조금만 현장을 바로 보면, 전부 이런 문제 상태 속에 한국과 세계가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타락이 점점 심해지거나 동성애까지 유행하고, 이제는 근친간의 관계도 사랑의 종류라고 주장하는 자들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이 모두 악한 것이 이 세상, 현장의 상태인 것이다. 하나님 떠난 세상의 상태다.

(2) 반면 종교인들의 모습은 어떨까? 마가복음 7장 앞부분에서 주로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런 수많은 죄악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니까 깨끗하고 보이지만, 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은 전혀 못 이기고 있는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7:8에,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위에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덮어씌웠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당시 제자들은 왜 이 전통을 안 지키느냐 하고 따지면서 정죄하는 것이다. 율법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모학선생, 유치원 선생인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이다. 인생이 율법 그대

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이 따로 있다. 이 복음을 깨달아라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 대신 율법을 붙잡고, 율법 대신에 전통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자기 삶의 기준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묶어놓는 것이다. 특히, 내가 좀 잘 믿는다, 제대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삼가 조심해야 한다.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다. 따져놓고 보면 똑같이 나도 죄인이고 부족한데,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본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것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율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내 기준, 삶의 기준을 율법과 전통으로 세워 놓고, 그것을 안 따르면 안 되는 것처럼 강조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복음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으로 더 확립되어야 되겠는가.

(3) 이렇게 되니까 현장에 진짜 임하는 멸망의 문제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각색 모양으로 병든 상태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여섯 가지 개인의 멸망이다.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 문제, 육신적 문제, 내세 문제와 후대 문제까지 계속 온다. 그러는 가운데 나라는 속국이 되어 버렸고 사회는 타락해 버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서,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되어서 밖으로 폭포수처럼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현장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져서 마음과 육신에까지 문제가 오게 되었다. 이것을 밖의 현상으로부터만 보면 안 된다. 내 마음, 우리 가정과 사회 현장도 같다.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이것이 인간의 상태가 되어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주님의 세 가지 사역

두 번째로, 이런 부분을 이제는 빨리 치유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이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다. 종교와 사단의 세력이 묶어놓고 닫아놓아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현장에, 주님이 임하셔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면서 세 가지를 바꾸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사역이 오늘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자.

(1)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 속에 있는 율법 각인을 복음 각인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게 마가복음 7:1-23의 내용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누르고 계속 어렵게 만든다. 복음 아닌 것이 각인되어 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깨뜨리기만 하는 것이다. 결국 죽음을 가지고 오게 된다. 주님은 제일 먼저 이 각인을 바꿔버리신 것이다. 율법의 기준은 전부 육신적인 것이다. 이것을 아무리 잘 해도,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다. 율법 각인을 빼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 복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그러면 나 자신이 살아날 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부패되고 오염된 것들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된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모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한다. 율법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은 정말 오래된 것이다. 한 6천 년은 된 것이다.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 어금니를 뽑을 때는 그냥 아무나 뽑을 수가 없다. 어금니만 뽑는 전문의가 따로 있더라. 이것을 수술해서 뽑고 다시 다레메 주었는데, 아주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서 뽑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 생활, 삶 속에 깊이 잘못 뿌리내려 있는 율법 각인을 뽑아내시기를 축원한다. 우리 속에 다 있다. 남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도 있다. 죽을 때까지 뽑아내어야 한다.

(2)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사역이 있다. 선민사상의 뿌리를 선교의 뿌리로 뒤집어야 한다. 마가복음 7:24-30에는 어떤 헬라인 여자, 즉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귀신들렸으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간청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거칠게, 심하게 말씀하셨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면 되겠느냐'하고 말씀하셨다. 이 이방인 여자를 개로 취급하는 것이 유대인 사상이다. 우리란 선민이고, 다른 것들은 이방인인데 짐승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다. 무서운 것이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짐승이라는 생각이다.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하신다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도록 하라, 네가 그 시발점이다' 하는 것이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거친 말을 듣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방 여자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다. 예수님은 사실 이런 대답을 유도하셨던 것이다. 이 여자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신 것이다. 이방인이란 복음을 받으면 산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기다리셨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바른 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집의 재앙이 끝났다는 말이다. 귀신의 세력을 꺾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이다. 그 이름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이름이다. 선민사상과 민족주의, 지역주의의 뿌리를 버리고, 세계 살릴 선교의 뿌리로 바뀌 버릴 때부터 응답이 시작된다.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군대 안에, 교회 안에까지, 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는 이 악한 마음, 선민사상을 속히 뽑아버려야 한다. 나는 늘 기도한다. 대통령에게 전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대에게서 편을 가르지 말고, 모두를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어느 장로님이 와서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우리 목사님이 자꾸 편을 가르니까 교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먼저 편을 가르지 마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마음 속에 이미 가르치는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게 사도행전 6장의 일이다. 편을 가르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 싸우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다. 한국 경제인들 중에서 형제간에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부유한 재벌들이 돈 몇 푼을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국민들이 부지를 존경하지 않는다. 속히 선민사상을 버리고, 세계를 살릴 선교 정신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이 땅에 없다.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신다. 구분은 하셔도 구별은 하지 않으신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하지만 차별하지 않으신다. 나라와 나라가 왜 싸우는가? 민족이 민족과 왜 싸우는가? 이것 때문이다. 우리는 사실 다 모두 아담, 하와와 후손인 한 가족 아닌가? 인류가 하나고, 지구가 하나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조국은 있어도 국경은 없다.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복음적인 뿌리, 선교적인 뿌리가 우리 가슴에 내려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선민사상의 마음, 나누고 싸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3) 마지막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귀가 안 들리고 혀가 굳어져서 말할 수 없는 청년을 고쳐주신 것이다. 혹시 우리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인지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서는 한 마디도 못 하는 상태이지는 않은가. 이것을 뒤집어 버려야 한다. 아무 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 것도 말할 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체질에 전부 빠져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능력으로 뒤집어 버리셨다. 무능의 체질에 전부 빠져 있는데, 그것을 전부 바꾸신 것이다. 예수 이름을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예수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와 영으로만 된다(슌4:6). 사도행전 1:8은, 너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모든 인간을 살리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무능의 체질이 복음의 능력의 체질로 변화되게 된다. 네가 하라고 했으면 절대 못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시면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신은 인정하면서 남은 절대 인정을 안 한다. 나에게서 법을 가능하면 은혜롭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적용한다. 반대로 해야 하지 않나? 나에게서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해야 하는데, 이것을 못 하니 자꾸 어려워진다. 반 발자국만 양보하면 된다. 그러면 싸움은 없어진다. 반 발자국만 양보하면 된다. 어려서부터 경쟁 일변도로 살았으니까, 요즘은 친구가 없다. 다 경쟁자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한가. 참사랑 가족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자. 성령의 충만을 받자.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용서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 가정, 가문, 이 인간을 살리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군요. 나 때문에 여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요셉이었고 에스더였다. 이런 크리스천이 필요하다. 살아보면, 인간은

다 똑같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게 복음이 필요하듯이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믿으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킬 수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거기 빠지지 않았더라도, '나 역시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저 인간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생각하면 싸우지 않게 될 것인데, 상처를 남기지 않게 될 것인데, 그것을 못 이기는 것이다.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란다. 이때부터 나를 통해서 모든 닫힌 것이 열리고 현상이 변화되게 된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한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이번 주에 우리가 받아야 할 미션은, 분별하는 힘을 가지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마귀의 말은 잘 듣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에게 맡긴 것이다. 너만이 저 인간을 살릴 수 있으니까 너에게 맡긴 것이다. 네가 그 인간을 살려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며 무엇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음성인지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틈만 나면 묶어놓고 닫아놓는 쪽으로 가는 각인, 뿌리, 체질에 빠지기 쉽다. 이것은 복음이 아닌 창세기 3장 체질이다. 나를 돌아보고,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실천해야 하는지 분별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울은 분별하는 신앙을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보았던 것이다.

(1) 제일 먼저 분별해야 할 것은 율법과 복음이다. 요즘은 복음 율법이 생겼다. 복음이라 하면서 완전 율법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율법과 복음을 분별해야 한다. 이 말은,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6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가능하면 우리는 죽이지 말고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다. 만약에 이번에 책임이 맡겨지면 나는 기도할 것이다. 젊은 나이에 노회장이 되었는데, 이 큰 노회를 어떻게 맡아야 할지를 두고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답을 주셨다. "목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라." 이번에도 총회를 맡게 되면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도할 것이다. "모두를 용납하고 모두와 함께 가라. 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길로 가라. 총회 회원들을 살리고 소속된 교회를 살려라. 죽이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다. 죽이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세상 법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살리지 못한다.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시기 바란다.

(2) 두 번째로,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는, 빌립보서 1:9-10의 말씀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요셉은 형들을 보고 원망하지 않았다. 나를 왜 팔아먹었느냐, 내가 여기에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하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이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불신앙에도 속지 않는다. 원수에게 속지 않는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란다.

(3) 마지막 세 번째다. 로마서 16:19-20에 보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보라. 인본주의를 버리고, 선한 데 지혜롭도록 기도하며 분별해야 되겠다. 이때 평강의 주님은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 원수 마귀를 네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마귀를 짓밟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치유자, 은혜자, 평화의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란다. 한 주간, 살리는 사역, 풀어주고 열어 주는 사역을 가지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닫혀있는 세상, 막혀 있는 세상, 뻣혀 있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엄청난 은총을 선전하도록 세운 선지자라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맺는 자가 아니라 풀어주는 자, 닫는 자가 아니라 열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과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시기 질투의 모든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묻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